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이중현 요셉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희망을 희망하며

코로나에 확진되어 2주 정도 아팠습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도 한동안 기침이 떨어지지 않아 고생했습니다. 혼자 격리되어 지내면서 짜증과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에 걸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름 철저히 방역 수칙도 지키고 주위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없는데, 어디서 코로나에 걸린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일주일의 격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불행하고 슬프고 아픈 일들이 가끔은 나의 잘못과는 아주 상관없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요. 대부분은 나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아주 가끔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잘못을 하지도 않고 성실하고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가족의 아픔을 바라봐야만 한다든지 하는 불행과 시련을 분명 우리는 삶에서 겪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물로 여겨졌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마귀가 들린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혹은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 잘못으로 여기며, 하느님의 벌로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가끔은 그냥 나쁜 일들이 생깁니다. 아무리 조심했어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특별한 잘못 없이 양심적이고 평범하게 살아도 건강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경험하는 것처럼, 나쁜 일들은 그냥 우리네 삶에서 벌어집니다. 억지로 그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냥 나 스스로에 대한 원망과 하느님께 대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픔과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분노로만 그 아픔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깊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희망입니다. 나의 아프고 힘든 삶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힘을 우리네 삶 속에서 직접 찾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독서치료



8월 11일(목), 16일(화)~19일(금) 서울남부구치소 여사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독서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주희 강사는 언어의 힘과 독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다양한 그림책과 시집을 낭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시와 글을 읽으면서 상대방과 소통함으로써 깨닫는 것도 많고 큰 위로가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힘을 키워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형수의 대모’ 김자선 엘리사벳 장례미사



8월 27일(토) 여의도성당에서 ‘사형수의 대모’ 김자선 엘리사벳 장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엘리사벳 자매의 남편은故 김홍섭 판사로 사형수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천주교 교정사목에 큰 공헌을 하였고, 자매는 1970년부터 후원회원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며 교정사목을 알리고 봉사자로 활동하며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님께서도 특별히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교정사목을 위해 헌신한 엘리사벳 자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9월 5일 명동 가톨릭회관 3층에서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가 살레시오회 나명옥 바오로 신부의 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미사에는 특별히 10월 축일을 맞이한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축하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3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



9월 8일(목) 제23회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0여명의 교육생들과 함께하게 된 이번 교육의 첫날,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는 열린 마음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9월 8일(목)부터 12월 1일(목)까지 매주 목요일 13회기로 진행되는 교정시설 자원봉사자교육으로 교육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에 물들기

김영옥 마리아_ 서울남부교도소 훈련원 대표봉사자

문득 성령강림 대축일에 뽑은 성령 카드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지혜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슬기로움을, 이해는 가르침을 잘 알아들음을, 의견은 옳고 그른 일을 구별함을, 지식은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할 것을 앎을, 굳셈은 지금의 어려움을 용감히 대적함을, 효경은 하느님을 공경함을, 두려움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릴까 두려워함을. 그에 따른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성실, 온유, 절제로 9가지 은사라 했습니다. 매번 성령 카드를 뽑을 때 바라는 은사가 있었지만, 항상 굳셈과 친절로 똑같은은 어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다른 것을 집으려 해도 매번 같았습니다.

갑자기 똥판지같이 성령 카드가 눈에 들어 왔을까? 하고 가만히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몇 달 사이 정신없이 아니 생각도 없이 시간도 없이 엄청 바쁘게 살았나 봅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고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저는 오로지 하느님께 향해 있고, 저는 옳은 판단을 하고, 언제나 친절하고, 언제나 열심히고 주변에서 “그건 아니지”하는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내가! 내가! 내가! 이만하면 주님 안에서 아주 잘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펄 하는 느낌이 들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하느님 위에 저 자신을 올려놓고 남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틀리셨어요.” 이 말을 마음에 담고 앉아서 쳐다만 보는 제가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주먹질은 아니지만, ‘말로 때렸구나. 내가 사람을 말로 찔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서 생각 없이 나가던 말이, 제가 당신보다 조금은 낫다는 생각으로 던지는 말이 철회가 되어 날아간다는 생각에 이르니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아픈 말을 던졌을 때를 생각해보니 칼로 손을 베이듯 그렇게 싸늘했습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돌을 던진 적이 있었을까? 있었겠지’ 제가 신앙 갖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위를 굴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저보다 조금 나은 교정사목의 형제자매들한테 위로받으며 제 마음이 조금씩 사랑에 물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 성인들의 도움으로 많이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몸이 지치면 항상 되지도 않은 의문으로 가득 찬 질문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항상 기도는 하지 않고 몸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고 계습니다.” 하고 말하는 저를 발견하면, “조금 컸구나. 마음에 작은 사랑의 나무에 물을 주었구나.” 하고 뿌듯함이 올라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교정에서든 어디서든 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제 힘으로 하려고 들면 잘 안 됩니다. 선배들은 하느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항상 기도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느님 사랑에 물들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이(Ai)의 임금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예리코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다른 도시 아이를 점령하려 진격합니다. 아이(Ai)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폐허의 더미’라는 뜻입니다. 예리코를 무혈로 점령(여호 6장)한 이스라엘 백성은 의기양양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정탐을 근거로 선부른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천 명이나 삼천 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그리로 가게 하여 고생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여호 7,3)

성서에서는 아이의 주민이 만 이천 명(여호 8,25)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삼천 명만으로 진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 성 앞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성 앞에서 36명이 전사하고, 후퇴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받아 죽게 됩니다(여호 7,5). 가나안 땅에서의 첫 패배였기에 그 충격은 컸습니다.

첫 패배를 한 후, 두 번째는 신중하게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하여 승리합니다. 반대로 아이의 임금과 백성들은 첫 승리에 취해 자만하여 경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쪽의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와 베텔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 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여호 8,14-17)

성읍은 비워두고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쫓으러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복병들이 빈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릅니다. 자신의 성에서 나는 큰 불길과 연기를 본 아이의 임금과 백성

들은 크게 놀라고 당황합니다. 쫓기던 이스라엘 군사들도 돌아서서 아이 임금과 백성들과 맞서 싸웁니다. 모든 백성이 죽어 전멸되고, 아이 임금도 처형당하여 나무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한 번의 승리에 취해서 방심하고 더욱이 모든 병사와 백성을 전쟁에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쫓은 아이의 임금에게서 죄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죄의 속성 중 하나는 그 죄의 행위에 몰입하여 앞뒤 가리지 않게 합니다. 은밀하게 행한 불법행위나 편법이 걸리지 않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 '이래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며 자만과 오만을 부립니다. 더 많이 얻기 위해, 더 많이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크게 넘어지고 다른 이에게까지 손해를 입히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작은 성공에 기뻐하며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봅니다. 감정들도 그러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흠에 미움이나 화가 생겨서, 그 화에 몰두하게 되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몰입하다가,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 성읍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적군 물리치는 것에 몰입하여 성읍을 비워두고, 결국 성읍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성읍'을 비우고 허황된 것을 쫓다, 내 모든 것도 잃고 성읍도 잃습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내 모든 시간과 열정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재물과 권력, 경력을 쌓으려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지만, 돌아보면 가족도 사라지고, '나'도 폐허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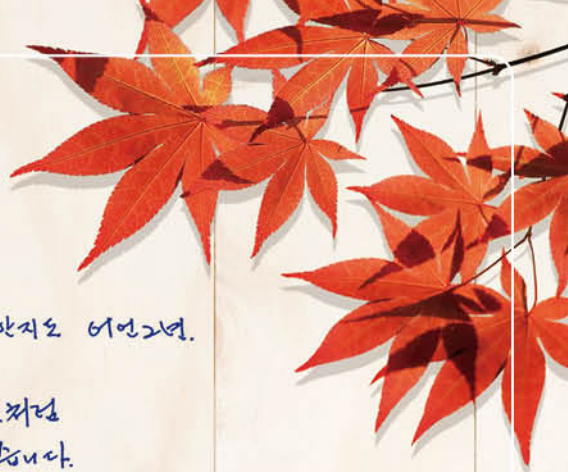
나는 나의 성읍을 잘 지키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 욕망을 따르다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떠난 것은 아닌지, 내 모든 정신과 시간과 가진 것 모두를 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성읍이 비어버린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떠났나요? 내 성읍은 무엇인가요?



가슴속에 열정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정00 (아파트 공사 현장, 외벽 로프공) / 2022년 창업대출자

- ▶ 모두 창업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창업이 어렵다고는 하나, 제가 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에 다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었고 다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 일반인에게 현재 업종의 장단점과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모든 일이 수월하지 않겠지만 직업 특성상 희귀직종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만 한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 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있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자금을 처음에 마련할 때 솔직히 출소자에게 사회라는 곳이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다시 첫발을 내딛는 거라 힘들었지만, 조금씩 용기 내어 일하며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솔직히 돈도 돈이지만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그래도 해왔던 일이고 그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는 것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 ▶ 창업 당시와 현재를 비교하면 영업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영업하시면서 나만의 비법이 있으십니까?
- 아직 시작하지 않아 모르겠지만,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되고 현장이 여러 군데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하여 다시 작업이 들어가지 않게 안전하게 작업합니다.
- ▶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있다면?
- 어려움이 생긴다면 원부자재 미수금이나 현장 결제 미지급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업체로부터 자금 결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해왔던 길이 오래되었고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을 함께 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 더 모인다면 3년 안에 법인을 만들 생각입니다.
- ▶ 현재 업종에 대해 예비창업자에게 충고해준다면?
- 창업이라 하면 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수년의 노력과 기술이 있어야 하므로 창업을 따로 하지 않고 기술을 배우기만 하여도 수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기술을 꼭 배워야 합니다.
- ▶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 출소 후 정말 막막했을 때 저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라는 방향 제시와 그 대출을 기다리면서 희망이라는 것이 가슴속에 있게 되어 그 심사 하는 동안에도 그 자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가슴속에 열정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행을 같이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로 인하여 시간 내주시고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단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군호사로 인해서 이사로 인해 생사로 못한지도 어언 2년.
신부님께 전해 생사로 하면서
그간이 극악했던 일도 있었지만 병 났던 것처럼
마음이 편한 장을 느껴 지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신부님과 처음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치아 문제도 상암을 정음하여
신부님께서도 저의 수면과 이동을 기억하시려고
몇 번씩이나 위서는 만능을 하면서
진한 감동이 온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해서 이곳에서 이사를 해주시고
모든 일을 군호로 이루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일인데.
또한 저에게까지도 이렇게 군호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부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지요.

광양 신부님께서 저에게게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서 모든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감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뜻이 하느님에 찬양받도록 있도록
도와 주신 신부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 7. 19.

강 ■ ■ (제오) 동남



2022년 11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11월 14일(월)		/ 중서울 길음동성당
▶ 11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 동서울 광장동성당
▶ 11월 28일(월)		/ 서서울 양천 성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원주교구 엠마오농장 "히카마" 판매

*** 히카마는 당뇨, 고지혈증, 장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카마 생과
- 5kg 29,000원 / 10kg 50,000원 • 히카마 수제 초청
- 600g 1병 24,000원 / 600g 2병 40,000원 <p>※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카마 소금(저나트륨, 신안 천일염)
10월 출시예정 • 주문 문의: 010-9057-1268 • 계좌 : 351-1240-5877-53 / 황금정(엠마오농장) |
|---|---|

● 행사 알림

- 9월 1일(목)~12월 1일(목)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14:00 (매주 목요일)
- 10월 14일(금) 사회사목국 전체 직원 야유회
- 10월 17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광장동성당 / 10:30
- 10월 2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양천성당 / 10:30
- 10월 27일(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 / 명동성당 / 19:00
- 10월 29일(토)~30일(일) 후원회원 모집 미사 / 대치3성당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7/15~8/18)

2022년 8월~9월에는 김수진, 박소영, 신광현 요셉, 신수원 요안나, 이미경 가브리엘라, 이은호, 조종윤 로베르토, 한승원 마리아, 황성규 요셉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배영희 헬레나께서는 기부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